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교육관 7번 교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주일학교 예배	주일 오후 1시35분	교육관 5번 교실
청년 기도모임	월 1회	교육관 7번 교실
말씀 나눔 모임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5번 교실
찬양예배	월 1회, 토요일	음대 강의실 217호
봉사자 기도 모임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행복을 나누는 건강한 교회(삼하7:21~29)”

주일 예배 봉사위원

	12. 22	12. 25	12. 29
대표 기도	김효중 집사	박재기 회장	한명희 집사
성경 봉독	김효중 집사	장용환 회장	한명희 집사
헌금 위원	한명희 집사	김영희 회장	박재기 집사
안내 위원	김남희 집사	김남희 집사	김남희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대강절 -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 성경 읽기 -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우세요.(겔41~48장, 단1~12장)
3. 감사 - 성탄 선물 받은 선교사님들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았습니다.
4. 총회 - 남전도회 - 회장:박재기 총무:김효중 서기:이수현, 청년회 - 회장:장용환
여전도회 - 회장:김영희 총무:황희순 서기:유미영 회계:유미경
5. 찬양집회 - 21일(토) 오후 2시, 음대 강의실 217호
6. 성탄 축하예배(25일, 수) - 성탄절 감사예배 드립니다(오후 2시)
7. 나눔의 시간 - 이상호 목사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교우동정

생일	오한슬 자매(15일) 김대철 형제(17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육체적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2. 새로 등록된 교우들이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3. 김선택, 장보경 협력선교사(성진, 예린, 주 허트번, 헝가리) 사역을 위하여
4. 전도, 선교, 구제에 힘쓰는 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민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3.Advent

- *송 영 Chor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정용현 안수집사
- *찬 송 Gemeindelied 104장 다같이
- *성서교독 Wechsellesung 교독문 117번다같이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357장 다같이
- 기 도 Gebet 유미경 집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마 11 : 2 - 6(신p17)..... 유미경 집사
(Matthäus 11:2-6)
- 설 교 Predigt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359장 다같이
- 발 표 회 주일학교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314장(1, 2절)..... 김효종 집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 정용현 집사
- *폐회찬송 Schlusslied 54장 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반주자

*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Bitte erheben Sie sich)

성도의 교제 친교실

보라 우리 왕이 오신다!

교회는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제물이 되신 대제사장이심을 강조하면서도 왕 되신 그분께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은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좋아합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만일 지금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어떻게 자기 자신의 일만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왕이시라면 그분은 지금도 명령을 내리실 수 있고, 그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의무는 온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변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는데도 말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거나 행하려 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우리 왕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날마다 네 십자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네 생명을 내려 놓으라”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능력 사용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와 동일한 삶을 따르길 기대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전권대사인 성령에 의해 계시된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그분을 환영할 수 있도록 주저함이 없는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보라, 우리 왕이 오신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마라나타!”

교회력에 따른 대천덕 절기 설교 / 대천덕

*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시기 위해서다. - Paul Tripp -